

韓國學專攻 프랑스 大學生을 위한 漢字教育 方法論

Yannick BRUNETON* (부루너통 야닉**)

서론

한자교육은 한국학의 기초학문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한자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일은 한국학 교육자에게는 우선적인 임무이다. 한국에는 漢字教育에 관한 논저는 수 없이 많다. 그만큼 한국의 한자교육은 전통이 깊고 풍부하며 훌륭하다. 그 전통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계승하여 발전해 왔다. 그러나 한자문화권에 속하지 않은 유럽의 프랑스에서는 한국학과 관련된 한자교육은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또한 한자를 처음 대하는 프랑스 학생에게는 한국식 교수법을 그대로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한자 교육 관련 자료를 많이 참고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고금의 크게 변하지 않은 원리적인 면도 있고 또 사회의 변화에 따른 역사성이 갖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대학생을 위한 효율적인 학습법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학제상의 조건, 제한을 비롯

* Université Paris 7 Denis Diderot UFR LCAO Section d'études coréennes

** 프랑스 파리7대학교 드니 디드로 부교수, 한국학 전공

한, 학생들의 프로필을 고려해야만 된다. 파리7대학교 동양학부 한국학과 학생들은 한국 대학생과 달리 1800 교육한자를 배우지 못하고 그 기본적인 지식의 기반도 없는 수준이며, 학제상으로는 그 모든 교육한자를 수업 시간에 배울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한자 교육지도는 자율학습을 중심으로 개발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 이야기할 것은 첫째로 파리7대학 한국학과 한자·한문교육관련 과정이 무엇이며, 그 학생들의 프로필은 무엇이며, 어떤 조건 하에서 공부하느냐는 내용이다. 둘째로는 그 조건과 맞게 학습법의 원리와 지도목표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셋째로는 강의내용, 연습, 숙제, 평가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 한자 교육자의 입장에서 파리7대학교에서 경험해 온 학습지도가 한국식의 일반적인 한자교육과 비교해보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이는 한자교육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 전문가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의도에서이다. 필자는 전공이 언어학이 아니라서 언어학상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다. 격려와 질정을 기대한다.

I. 學制上 學習에 대한 條件

1. 파리7대학 한국학과 한자·한문교육 과정

파리7대학교 한국학과 한자·한문교육 과정은 다음 표에 소개한다.

〈표 1〉 파리7대학 동양학부 한국학과 한자·한문 교육 프로그램 (총 180 시간)

講目	學年	時間
<i>Exercices structuraux en sinographie</i> 漢字鍊習	二學年一次學期	36
<i>Exercices structuraux en sinographie</i> 漢字鍊習	二學年二次學期	36
<i>Études classiques de la Corée. Le chinois classique en Corée, hamun</i> 韓國 古典學. 한국에서의 漢文	三學年一次學期	36
<i>Lecture des textes classiques en hamun</i> 漢文資料講讀	三學年二次學期	36
<i>Culture écrite de la Corée en chinois classique</i> 韓國漢文學入門	四學年一次學期	18
<i>Lecture de sources coréennes en chinois classique</i> 韓國 漢文資料 講讀	四學年二次學期	18

여기서는 ‘한자연습’이란 강의에 대해서만 논의하겠다. 한자연습 강의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 학기에 12회이며 한 회는 1시간 30분이고 총 36시간이다. 이 강의는 2학기까지 지속되며 따라서 한 학년에 총 72시간이다. 이것은 한국 전통문화나 고전학, 文史哲을 습득하기 위한 추후 과목의 주춧돌인 만큼 소중한 시간들이다. 그러나 서론에서 지적했듯이, 1800 교육한자를 공부하는 데에는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과정이 논리성 및 일관성이 있으며 난이도도 단계적으로 이루지는 편이다.

그 순서는 크게 한자, 한자어, 한문의 세 단계로 나눈다. 한자 교육에 대한 종래 이론에서는 학습자의 실제적인 연습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정한 상황에서는 그 이론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적합한 교육이란 실제적인 학습조건에 배려에서 비롯해야 할 것 같다. 이제 학습자의 프로필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2학년 학생들은 한자를 모르는 기초자이며 평균 연령은 20세이며 한국어 실력은 한국어로 된 한자교육자료를 분석하기에는 이해력이 좀 떨어져서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기가 어렵다.¹⁸⁾ 또한 한국어의 언어 수준

(niveaux de langue)과 한자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둔감하다. 그리고 동양 전통문화에 대해서 지식의 기반이 아직 튼튼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사용되는 어린이를 위한 자료는 이해도는 낮지만 연령조건에 안 맞아서 참고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현재 프랑스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사는 주로 영화, 만화, 요리 등에 있다. 즉, 프랑스 사회 내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량 소비용품 및 문화제품들이다.

또 그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출판물들에 보편화되어 있는 한글전용으로 인해서 한국문화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二重文字生活이란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한글전용을 보고 현대 한국어에 한자를 표시하는 것을 좀 이상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오히려 거부감이 생긴다. 그리고 그 결과 무의식적으로라도 한자가 많이 포함된 글을 피하게 된다. 따라서 한자의 학습이 고전학 전공자에게만 필요하다는 선입견을 처음부터 타파하는 것이 급선무다.

II. 指導의 원리 및 전략

1. 自律學習指導

상술한 기본요건을 보면 거기에 합당하는 지도의 원리는 한 마디로 자율학습이다. 시간상의 근본적인 제한 때문에 자율학습이란 길을 떠나면 다른 어떠한 적합한 방법도 없는 것 같다. 따라서 강의의 목표는 많은 한

18) 어떤 경우에는 다른 동아시아 언어(주로 중국어나 일어)를 전공하는 학생들도 한국 학과에 등록하고 있다. 그럴 때는 다른 일반 학생들에 비해 한자 학습량이 있어서는 앞서지만 略字를 쓰는 습관이 들어서 한국식 한자필순을 지키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니와 한국식 漢音을 배우지 못한다.

자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는 데에 있다. 자학(字學)은 자학(自學)으로 이루어져야 되면서도 자학(自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학습을 준비하는 것이 필자의 목적이다 (이와 같은 농담은 한글전용이 철저하게 적용된다면 있을 수 없다). 3학년 부터 필요에 따라 교육한자를 효과적으로 계속해서 익히도록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선문대 최주열 교수는 한자를 가르친 경험에 비추어 한 국어를 외국어로서 배우는 자들에게는 자율학습이 적합하다는 교훈을 얻은 바가 있다.¹⁹⁾ 자율학습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요구되며 한자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한자 사전이나 옥편, 색인, 및 숙제,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도구가 그것들이다.

2. 한자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

현대 한국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非漢字文化圈에 속한 학습자들에게는 한자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 그것을 강의의 前提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漢字를 배우기 전에도 학생들은 현재 한국을 비롯한 다른 東亞諸國에서 왜, 어떻게 한자를 배워야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자에 대한 필요성을 역사·문화·경제·정치적인 다양한 면에서 객관적으로 설득시켜야 한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어 자료가 많고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들을 佛語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전체적 지식이 잘 섭취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한자를 공부하는 동기를 숙제로 삼아 스스로 자기 언어로 표현하게 하면 좋

19) 최주열, 1994: 173, 특히 일정 기간 학습 경험과 사회 경험을 한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며 한자의 기본 구조와 육서의 원리를 통하여 자원풀이 방식, 부수의 활용법을 숙지하면 스스로 한자 학습을 할 수도 있다.

다. 요컨대 동양학부를 다니는 학생에게는 한자교육이 전 동북아 전통문화를 접근할 수 있는 관건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3. 옥편, 자전, 색인의 사용법 훈련

한자를 자율학습하려면 자전, 옥편, 여러 가지 색인의 사용법을 통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용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실용적인 연습은 강의시간에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해드 된다. 또한 한국 자료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참고서를 망라한 자전 및 한자색인의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자전의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할 기회를 주는 것이 유리하다.

4. 숙제의 중요성

이제 宿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겠다. 自律學習能力을 발휘시키기 위해서 숙제를 정기적으로 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특히 한자나 한자어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숙제를 집중적으로 많이 내면 도움이 된다.

5. 교육도구

마지막으로 자율학습에 적합한 교육도구가 요구되는데, 현재 파리7대 학교에서 이용하는 것은 옥편(자전), 인터넷 및 책자의 형태로 된 교재다. 한자교육에 있어 옥편은 빠뜨릴 수 없는 필수도구인 만큼 그 내용과 사용법을 통달해야만 한다. 인터넷은 지금까지 오로지 한정된 사용으로, 즉 주로 확인하는 데에만 이용되어 왔다. 특히 전문 웹사이트를 통해서 한자

필순 및 사각호마검자법으로 찾는 한자를 확인하는 데 머물렀던 것이다. 앞으로 인터넷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법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제 교재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상적인 방법론이 아직 없듯이 이상적인 교재도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한자를 처음에 대하는 외국인을 위해서 교재를 별도로 준비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 발표자는 한자교육을 위한 자료집의 형태로 책자를 개발하고 있다. 이 책자의 내용은 한국어로 된 자료도 있고 불어로 번역된 다양한 참조자료를 실었다. 대부분 자료는 강의시간에 다루는 내용에 맞추어 예증을 주거나 숙제주제까지 제공해주기도 한다. 책자 형태의 장점은 보존하기가 편하고 강의시간에 참조자료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책자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목차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표 2〉 한자연습 강의 책자의 목차

한자를 왜 배워야 하는가?	Pourquoi apprendre les caractères chinois en coréen
한자는 과연 배우는 것이 어려운가?	Les caractères chinois sont-ils difficiles à apprendre
한자에 대한 일반지식	Généralités sur les sinogrammes
한국에서 한자교육의 특수성	Spécificités de l'apprentissage des sinogrammes en coréen
배우는 한자	Les caractères étudiés
한자어	Les mots sino-coréens
고사성어	Les expressions en quatre caractères
부록 (찬휘, 간지, 성씨, 한자능력검정시험 주제)	Appendices
참고문헌	Bibliographie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책자의 중심내용은 한국어 한자문화의 특징과 교육에 배정된 한자이다.

6. 漢文教育을 지향하는 한자교육

한국학을 전공하는 자에게는 한자교육의 목표는 비단 한자어 어휘력을 향상하는 것이 물론이지만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한문을 배움으로써 한문 자료를 해독할 수 있는 데에 있기도 하다. 그럼으로써 현대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까지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자교육 방법을 생각할 때는 한자어에 대한 이해력을 개발시키는 것은 첫 단계라는 것을 유념해야 된다. 한자어 구성원리와 고사성어를 분석하는 방법은 한문문화를 접할 수 있어 중요한 구실을 맡는다. 이제 한자연습의 강의를 전체적으로 소개하겠다.

Ⅲ. 강의내용, 연습, 평가법

1. 강의내용

파리7대학교 한국학과 한자연습 강의는 두 학기로 구성되어 있다. 1학기의 목표는 한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구성요소, 구조, 쓰는 방법, 필순, 발음 등)을 습득하는 데에 있으며 2학기의 목표는 자율학습에 필요한 실력을 습득하고 한자어를 공부하는 데 있다. 마지막 수업 때엔 故事成語를 통해서 漢文文法의 기본요소인 虛字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따라서 강의는 한자어 이해력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한자교육, 그리고 한문 문법 이해력을 위한 목적으로 한자어교육, 즉 한자, 한자어, 한문 세 단계로 되어 있다. 강의내용의 줄거리는 <표3>에서 열거한 바와 같다.

〈표 3〉 한자연습 강의계획서

Semestre 1 一次學期	
Introduction 概論	Généralités sur la langue coréenne 한국어에 대한 개요
	Importance de l'apprentissage des sinogrammes 한자학습의 중요성
	Breve histoire de l'écriture en Chine 중국문자의 略史
	Usage et apprentissage des sinogrammes en Asie Orientale 東亞에서의 漢字사용과 교육정책
Les caractéristiques fondamentales des sinogrammes 漢字的 기본 특징	Les éléments fondamentaux d'un sinogramme 漢字的 기본 구성요소
	Les six caractéristiques 漢字的 六特徵
	Les six principes de constitution 漢字的 六書
L'écriture des caractères chinois 漢字쓰기	Les règles d'écriture des sinogrammes 漢字的 隸畵규칙
	Les notions de base de la calligraphie 書藝에 대한 기본개념
Étude des clés 部首의 고찰	Systèmes de classement des sinogrammes 漢字的 分類制度
	Clés et étymologie 部首와 字源
	Étymologie des clés 部首의 字源
	Clés en composition dans un sinogramme 漢字속에 변형된 部首
La prononciation coréenne des caractères chinois 한국식의 漢字音	Prononciation et séries phonétiques 漢字音과 音符
	Homophonie 漢字同音
	Cas particuliers 특수경우
Semestre 2 二次學期	
Recherche et apprentissage des caractères 漢字檢索과 學習方法	Méthode de recherche dans les dictionnaires 字典索引類에서 漢字的 검색방법
	Méthodes d'apprentissage 漢字에 대한 다양한 學習方法

Vocabulaire et digraphie 語彙와 二重文字의 共用	Formation des mots sino-coréens 漢字語의 構成
	Questions posées par la digraphie 이중문자 공용에서 야기되는 몇 문제
Histoire de l'écriture 韓國文字의 略史	Des «caractères nationaux» au han'gûl 國字에서 한글창제까지
Des hancha vers le hanmun 漢字에서 漢文으로	Quelques mots vides 虛字개념과 여러 가지 例
	Expressions en quatre caractères 選定된 故事成語 分析

2학기부터 학생들은 한자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자를 한자 한자씩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는 수준이 된다. 학제상으로는 1800 교육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강의시간조건에 맞추기 위한 일정한 한자자료집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약 10년 전에 한국에서 공인받은 한자능력검정시험이 설립되었고 등급별 일정한 한자수를 배정해 놓았다. 한자교육자에게 그러한 시스템을 따르는 것은 의미가 크고 도움이 된다. 다음은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등급별 배정한자를 공부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 한자능력검정시험 6급 배정한자의 300자

이상적으로는 한자를 많이 알면 알수록 좋기는 하나 너무 많이 공부시키면 비생산적이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다. 한 학기의 총 18시간 내에서 몇 자를 배울 수 있는가? 수업시간에는 한자 한자씩 가르치는 여유가 없거니와 의미도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각 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옥편에서 쉽게 얻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경험으로 보아 기초자에게는 한

자를 하루에 5자씩의 원칙으로 공부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주말을 제외하면 1주일에 25자씩 배울 수 있다. 12회의 강의로 되는 한 학기에는 (12 곱 25 =) 300자가 되는 셈이다. 300자의 배정한자는 한자 능력검정시험의 6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다. 프랑스 대학생 기초자에게는 300자가 적지 않은 학습 분량이다. 또한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선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으로의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한국에서 계속 한자를 배울 수 있고 시험을 칠 수 있어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 이전 배정한자 300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 分類別 教育법

기초자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分類別 教育법인 것 같다.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조선시대의 어떤 선비들도 주장한 적이 있다. 한국 한자교육의 전통을 살펴 볼 때 分類別 教育법은 蒙求書인 類合의 계통에 속한다. 과연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특히 한자의 특성인 聯想性이나 聯關性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類合과 같은 몽구서의 분류법은 주로 漢詩나 類書의 분류법에 의거해서 한문학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학생들에게 한자를 또 다른 다양한, 학습자의 개성에 맞는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설명할 필요가 있고 수업시간에는 한두 가지를 경험해 보면 좋다. 그러나 한 학기동안 한 가지만 따르는 것이 유리하다.

- 한자교육을 위한 연습지

프랑스에는 한자 쓰기 연습지가 없어서 별도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

다. 그래서 연습지를 이용해서 각 자에 形, 義, 音, 部首, 劃數, 부수 외 획수, 필순, 쓰기연습 등을 공부시킨다. 발표자가 연습지를 준비했을 때 그 연습지는 字典이나 한자색인에서 가장 보편화된 부수로 찾기 방법을 익숙하게 하도록 노력했다. 한자의 획수와 부수 외 획수를 표시하는 것은 그러한 의도에서 비롯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지를 거두고 꼼꼼하게 교정함으로써 조금씩 서예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기도 한다. 그리고 연습지를 이용하는 또 하나의 이점은, 어떤 학생들은 일본·중국식 한자를 배웠기 때문에 필순이 틀릴 수 있는데, 연습지를 사용하면 한국식 필순도 공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 한자어에 대한 공부

한자어 교육은 한자를 한자씩 배운 다음의 단계이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필수적이어서 매우 중요시되는 강의내용이다. 그러나 그전에 지적했듯이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한자교육은 한자어 어휘력을 발휘시키는 데에 그칠 수가 없다. 한문을 지향하는 한자교육으로서 한자어의 구성원리와 한문문법과 직접 관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수식어와 피수식어 기본순서와 어순(주제, 동사, 보어, SVO)을 한문문법에 입각해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자어를 분석할 때 모국어 단어와 비교하게 된다. 그것을 통해서 그 구조와 사용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번역을 통해서 한자어의 특징인 조어력을 예리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습

- 강의시간의 연습

강의시간에는 세 가지 유형의 연습을 한다. 이중문자쓰기 연습(exercices sur la digraphie)과 推句²⁰⁾를 통해서 보는 詩語의 연관성(correspondances poétiques)과 한자능력검정시험 8급 시험이 그것들이다. 각 유형에 각각의 목표가 있다. 이중문자쓰기가 무엇이나면 같은 글을 여러 가지 방식(한글 전용을 쓰거나, 한글·한자 혼용체, 부분적으로 혹은 모든 한자어를 한자로 표시함)으로 써 본 다음에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쓰기연습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한글전용이나 한글·한자 혼용체의 장단점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독서의 효과성을 체험할 수 있다. 한문문화 내에서 한자들간의 시어적 연상관계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한 글자를 두고 그 앞뒤를 분석하는 일을 연습주제로 삼는다.

- 속제 출제유형

한자의 연습저 외에 속제를 또 다르게, 강의내용 단계별로 낸다. 그 출제유형은 다음 표에서 정리해 보았다.

20) 저자와 간행시기 미상 蒙求書다 (아동용 기초교재다). 五言으로 된 좋은 구절(詩句)들을 뽑아 엮은 저서다. 필사본으로만 전래되었다.

학기	단계	유형
1	1	가. 육서 확인 및 획수 계산
		나. 필순으로 쓰기 연습 (점진적인 난해도)
	2	다. 옥편을 참조함으로써 한자에서 부수 확인 라. 부수 확인과 표시, 부수 번호(강희자전) 매김 마. 十 大部首 외우는 것
	3	바. 옥편 가나다색인을 보고 한자의 형부를 확인
	4	사. 십 대부수의 음, 의, 획수, 필순, 번호
2	5	아. 사각호마검자법으로 수자를 매김 (천자문 순으로) 자. 사각호마검자법에 따른 수자부터 자형을 재확인
	6	차. 한음 한글로 표시, 한자어의 구성원리, 불어로 번역
	7	카. 이자어의 한자순 바꾸면 뜻의 차이 설명, 분석 타. 불어단어를 한자로 번역 (배우는 자로부터) 파. 추리로 한자어를 조어 (배우는 자로부터) 하. 국어사전으로써 번역, 그리고 불어로 번역 (이자어, 삼자어, 사자어)

강의가 진행되면서 난이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주제유형은 많아지고 그리고 그 학습량을 조절한다. 1학기 말이나 2학기 초에 복습하는 뜻에서 그 전에 연습했던 모든 유형을 제출한다. 단계5부터 학생들은 한자를 숙제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 숙제는 강의 평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3. 평가방법

한자연습 평가법은 기말시험 중심이다. 그러나 기말시험 출제의 유형은 숙제 출제유형과 같기 때문에 숙제는 시험의 준비가 된다. 학생들이 숙제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처음부터 알려 주면 유리하다. 표에서 보면 숙제유형은 한자능력검정시험과 여러모로 다르다. 예를 들면 한

자의 원형에 대해서 시험보지는 않는다. 반면에 한자어의 구성원리는 시험문제가 된다.

IV. 프랑스 대학생을 위한, 특수한 한자 교수법이 있는가

이 발표 모두에서 한국의 한자교육 전통은 위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비한자문화권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접근방법이 처음부터 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유럽대학생들이 한자교육을 놓고 문화차이와 관련된 어떤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한국어로 된 한자교육에 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참고하면서 또 어떤 점에서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프랑스대학 2학년 학생을 위한 강의를 준비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거니와 강조해야 되는 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에서는 한자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상식적으로 파악하기가 용이하나 유럽나라에서는 그와 달리 그 중요성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2. 한자교육에 접근할 때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라는 넓은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문화의 차원에서 한자교육을 검토함으로써 그 역사성과 특징을 드러내 준다.
3. 한국의 일반 교과서나 지침서와 달리 자전, 옥편, 여러 가지의 색인의 사용법을 상세하게 익힐 필요가 있다. 한국학 전공 학생에게는 중국, 일본 참고서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한국식 옥편을 떠나서 한국에서보다 다양하게, 중국에서나 일본에서도 20세기부터 사용해 온 四角號 碼檢字法과 같은 방법까지 배우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다양한 참고

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강희자전 부수의 번호를 외워야 한다.

4. 대학생들은 1800 교육한자의 지식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자학 습량은 한국에 비해서 적게 설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5. 한자능력검정시험 등급별 배정한자를 이용하되 그 한자를 분류별로 정리를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6. 한자의 聯想力을 발휘하기 위해서 한자의 연관성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자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7. 한자어를 보다 체계적으로 문법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8. 한자의 구성을 배우는 과정에서 국어사에서 사용된 한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운이란 개념과 반절, 반절과 이두, 국자 구성원리, 훈독과 음독, 차자법 등등 표기법 문제 중국 문자생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9. 강의시간에 서예에 대한 체험을 하면 유리하다.
10. 한국에서 이중문자생활에 있어서는 한글전용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를 한국에서 보다 감정없이 냉철하게 접근할 수 있다. 한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한글전용으로 되는 자료는 도움이 안 되어서 피해도 좋다.

결론

효율적인 한자교육 방법을 개발하려면 튼튼한 이론적인 면도 필요하되

학습의 실제적인 조건, 제한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한자를 전혀 모르는 프랑스대학 2학년 학생 기초자들에게 상응하는 특별한 학습법 및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본인은 학제상의 시간제한으로 인해서 자율학습을 중심으로 방법론을 개발해 왔다. 한자수보다 자율학습능력을 발휘시키는 데에는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어 어휘력 및 한문 독해력을 성숙시키기 위한 한국학 기초교육으로서 자율학습 지도는 한자의 구조 이해와, 한자어 구성원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한문교육을 지향하는 한자교육이다. 따라서 한자교육 방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즉 한자단계, 한자어단계, 한문단계이다. 삼학년생들에게도 교육한자연습을 시킨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佛語文化圈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발전시키려면 기초가 되는 한자교육에 대한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 자료를 많이 참고함으로써 불어로 번역된 글과 일차자료를 모집하여 책자로 묶어 보았다. 이 책자는 강의내용에 알맞게 보조해주며 숙제에도 참조가 된다. 앞으로 몇 년 내에 학생 본인 자료집뿐만 아니라, 교수본 교과서, 숙제거리를 묶어내는 연습본도 개발하고 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재나 교육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많은 충고와 격려를 기대한다.

[주제어] 한국학, 한자교육, 파리7대학, 한자어교육, 한문교육

참고문헌 (연대순)

- 조종업, 한문통석, 서울, 형설출판사, 1975.
- Lukoff, Fred, *A first Reader in Korean Writing in Mixed Script*, Yonsei University Press, Seoul, 1982.
- 권지용, 국제실용한자명해, 서울, 지림출판사, 1985.
- LI Jin-mieung, JO Han-kyoung, HAN Chang-su, Dictionnaire des caractères sino-coréens, Paris, P.A.F (Pour l'Analyse du Folklore), 1993.
- 최주열, 한자 교육 방법에 관한 고찰 - 외국인에 대한 한자 교육을 중심으로 -, 한국말 교육, 1994. 145~174쪽.
- 漢字教育活性化推進會 편, 漢字教育新講, 서울, 1998.
-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편, 新漢文科教育論, 傳統文化研究會, 2000.
- 김기창, 김창진, 배원룡 편저, 교양인을 위한 漢字 漢文, 서울, 2002.

Web sites:

<http://hanja.pe.kr>

<http://zonmal.com>

■ Abstract

Method of education on Korean-Chinese Characters for beginners at
the Korean Studies Center of the French students

Yannick BRUNETON

This presentation consists in describing the outlines of the course of education on Korean-Chinese Characters («Exercices structuraux en sinographie») for beginners at the Korean Studies Center (included inside the East Asian Studies Department) of the Paris 7 University given to the 2nd year French students. Because of the time limits inherent in the academic year, the suggested method is centered on 'self-training'.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not limited in learning Korean-Chinese characters(300 characters corresponding to the level 6 of the 'National Test of knowledge about Korean-Chinese Characters' Hanja nūngnyòk kòmjòng sihòm), but it aims to improve the capacity of students to analyse and to use the Korean-Chinese lexicon. At the end of such training, students are to be introduced to the basic rules and notions of Classical Chinese. In the last part of the communication I tried to bring out some specific points that teacher of European student should emphasizecomparing to Korean methods. I would like to use this opportunity to receive suggestions and advices by scholars specializ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of different countries beginning by South-Korean experts in order to publish in French educational materials, useful for Korean-Chinese Education.

[Key Words] Korean-Chinese Characters Education, Paris 7 University, Classical Chinese, Classical Studies, Theory of Education

Résumé (불문 초록):

En Corée, la tradition de l'enseignement des caractères chinois est ancienne et remarquable. Pour autant, la plupart des méthodes existantes, sous forme imprimée ou bien numérisées, ne sont pas adaptées à l'enseignement des apprenants européens dont la culture ne connaît pas l'usage des sinogrammes. Si les principales sources de référence des enseignants des caractères sino-coréens restent les sources coréennes, il n'en reste pas moins qu'ils doivent créer des outils et des méthodes efficaces pour la didactique des caractères chinois utilisés en Corée aujourd'hui. À l'Université Paris 7, dans l'Unité de Formation et des Recherches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de l'Asie Orientale (U.F.R. L.C.A.O.), le cursus des études classiques sur la Corée débute par un cours de sinogrammes («Exercices structuraux en sinographie») destiné aux étudiants de 2e année de Licence, débutants. Les objectifs de ce cours sont de permettre aux étudiants d'apprendre un corpus de 300 caractères parmi les 1800 caractères de l'enseignement public obligatoire de Corée du Sud, qui correspond au niveau 6 du système d'évaluation des connaissances des caractères chinois, mais également de comprendre la structure du lexique sino-coréen, et d'aborder quelques notions sur la grammaire du chinois classique. Nous estimons qu'une bonne méthode d'enseignement des sinogrammes est une méthode qui prend en compte les conditions réelles d'apprentissage et le profil des étudiants. Les limitations institutionnelles ne permettent pas de disposer du temps nécessaire à l'apprentissage complet des 1800 caractères de base. Nous avons fait le choix de ne pas chercher à enseigner le plus grand nombre de caractères possibles, mais de donner aux étudiants les moyens d'un apprentissage autonome, répondant aux besoins ultérieurs de chacun. L'assimilation de ces compétences exigent le recours à des exercices adaptés, ainsi qu'à l'exploitation de sources diverses, en coréen et en

langues occidentales. Nous avons ainsi mis au point des sujets d'exercices progressifs ainsi qu'une brochure pédagogique regroupant les documents illustrant les points les plus importants du cours. Après avoir présentés les principes de notre enseignement, nous avons décrit le programme du cours «Exercices structuraux en sinographie», ainsi que les exercices et le système d'évaluation qui l'accompagne. Dans une troisième partie, nous avons indiqué quelques points qui nous semblent distinguer notre méthode de la plupart des méthodes coréennes destinées à des apprenants coréens. Nous attendons de la présentation de notre méthode à des universitaires Sud-Coréens et internationaux une expertise fine et rigoureuse, et un échange stimulant, afin d'améliorer outils et méthodes, en vue de la publication de matériaux pédagogiques pour l'enseignement des caractères sino-coréens, qui pourront être de quelque utilité dans notre université, mais plus généralement également en France et dans l'espace de la francophonie.

[mots-clés] enseignement des caractères sino-coréens, Université Paris 7, chinois classique, études classiques, didactique